

'7이닝 7K 무실점' 류현진, 보스턴 넘고 시즌 4승

데뷔 첫 보스턴전 승리
평균자책점 2.51으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강 타선을 뚫고 무실점 시총 4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보스턴전 선발 등판, 7이닝 4피안타 7탈삼진 무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세 차례 보스턴전에서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책점 4.24에 그쳤던 류현진은 끝끝내 투수의 위용을 뽐냈다.

6-0으로 앞선 8회 교체된 류현진은 토론토가 보스턴을 8-0으로 꺾으면서 시즌 4승(2패)째를 거뒀다. 최근 등판한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총 투구수는 100개 중 스트라이크는 67개로 나타났다. 100개는 올 시즌 개인 최다 투구수다.

포심패스트볼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체인지업(26개), 커터(21개), 커브(15개) 등을 적절히 섞었다. 슬라이더와 싱커는 각각 4개와 3개로 집계됐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2.95에서 2.51까지 떨어졌다.

류현진은 1회초 첫 타자 키케 에르난데스를 3구 삼진을 돌려세우고 깔끔한 시작을 알렸다. 알렉스 버두고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J.D. 마르티네스와 랜디 보가츠를 우익수 파울 플

라이와 삼진으로 정리했다. 지난날 21일 류현진에게 3점 홈런을 뽑아냈던 보가츠는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커터에 방망이조차 내지 못하고 물러났다.

2회와 3회는 삼자범퇴로 끝났다. 보더라인에 걸치는 류현진의 투구에 보스턴 타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류현진은 2회 선두타자 라파엘 디버스를 삼진으로 요리했고,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와 헨터 렌프로를 모두 내야 땅볼로 돌려세웠다. 타선이 2회말 1점을 뽑아줘 리드를 안고 맞이한 3회는 삼진 1개를 섞어 공 9개로 마쳤다.

상위 타선과 다시 만난 4회, 첫 위기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버두고를 잡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버두고는 볼카운트 2B-1S에서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정확히 받아쳐 우측 펜스까지 굴러가는 2루타로 연결했다.

결끄러운 타자 마르티네스를 초구 3루 땅볼로 잘 처리한 류현진은 보가츠의 깊은 유격수 땅볼을 보 비셋이 포구에 실패해 1사 1.3루에 몰렸다.

류현진은 승부처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다. 후속타자 디버스를 유격수 플라이로 제압하고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풀카운트에서 떨어지는 변화구가 재미를 봤다. 이후 바스케스마저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이닝을 마쳤다.

4회말 타선이 3점을 지원하면서 류현진은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렌프로에게 우측 담장을 직접 때리는 대형 타구를 헌납했지만 우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레이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1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송구로 타자를 2루에서 잡았다.

후속타자 마윈 곤살레스와 보비 달백은 류현진의 목적인 구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야 땅볼에 그쳤다.

류현진은 6회 선두타자 에르난데스를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시켰다. 하지만 앞선 두 타석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버두고에게 삼진을 뺏아내 흐름을 바꿨다. 2사 후에는 보가츠마저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7회에도 모습을 드러냈

다. 구위 또한 여전했다. 디버스와 바스케스 변화무쌍한 투구에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맥업은 3루 땅볼로 아웃됐다.

2사 후 렌프로와의 풀카운트 승부는 루키 삼진으로 막을 내렸다. 류현진은 90.8마일(약 146km)짜리 몸쪽 짝찬 싱커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토론토 타수들은 화끈한 타격으로 류현진을 도왔다. 1-0으로 앞선 4회 상대 실책의 비셋의 적시 2루타로 3점

을 보태 격차를 벌렸다. 5회와 6회에도 1점씩을 추가해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랜달 그리척이 5타수 2안타 2득점 2타점을 신고했고,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도 5타수 3안타 경기를 펼쳤다.

3연승에 성공한 토론토는 23승17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보스턴(25승18패)을 0.5경기차로 압박했다.

뉴스

-타선이 잘해줬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다. 누구 한 명 내놓을 수 없을 정도다. 공격, 수비 등 야수 뿐 아니라 중간 투수들까지 근래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토론토 입단 후 두 경기 연속 7이닝 던졌는데 몸 상태는 어떤가.
“몸 상태는 너무 좋다. 계속 이런 이닝과 오늘 같은 투구수를 던지려고 준비할 것이다. 전혀 불안감 없이 잘 준비해 두 경기가 잘 진행됐다.”

-임시였지만 오랜만에 홈에서 던졌는데.
“너무 편안했다. 선수들도 이곳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다. 스프링캠프부터 이곳에서 해왔기에 홈 같다. 좋은 경기력이 나와 기분이 배가 된다.”

-마운드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재로도 그런가.
“당연히 긴장되고 떨린다. 밸런스를 잃어버릴 정도의 경기도 있다. 상대를 알고 내가 준비한 것만 생각하려고 한다. 한 번에 너무 안 무너지려는 생각으로 던져 좋은 쪽으로 되는 것 같다. 집중타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짧게 가려고 생각한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나.
“직구, 커브, 커터, 체인지업 4개 구종 제구가 너무 잘 됐다. 특히 커브를 중요한 상황에 많이 활용할 정도로 제구가 잘 됐다. 다른 날보다 편안하게 경기를 진행했다.”

-1회 에르난데스에게 큰 파울을 맞고 왜 웃었나.
“바람이 지난 주말부터 그쪽 방향으로 많이 불었다. 바람이 살려줬다. 기쁨의 웃음이었다.”

'도쿄 겨냥' 양궁대표팀, 신안 자은도 바닷가 특훈...지진대비 훈련도

도쿄올림픽 우메노시마 양궁장과 유사한 기후 환경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이 수월한 현지 적응을 위해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바닷가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안군 자은도에서 도쿄올림픽 대비 기후 환경 적응훈련을 갖는다. 전지훈련 장소인 신안군 자은도 두모체육공원은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경기가 열리는 우메노시마 경기장과 입지조건이 유사하다.

해안가에 위치한 훈련장 환경, 바닷바람, 습도, 햇빛 등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훈련하며 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를 사전에 경험하고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대표팀은 실거리 훈련, 랭카운드, 혼성, 단체전, 모의경기 등 올림픽과 동일한 경기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채순 총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국제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야구장 소음훈련 등 특별훈련을 갖기에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면서도 “선수단은 자체 실전 훈련과 선수 개인별 기술점검 및 맞춤 훈련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번 훈련에는 최종 2차 평가전을 통해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김우진(경주시청),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일고·이상 남자부), 강채영(현대대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이상 여자부)이 참가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을 기준으로 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별훈련 2회, 미디어 교육, 지진대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야구 천재' 오타니, 3일 연속 대포쇼 시즌 14홈런으로 MLB 단독 선두 질주

일본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7·LA 에인절스)가 3일 연속 대포쇼를 선보이며 메이저리그(MLB) 홈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오타니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1 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2득점으로 필립 날았다.

첫 타석부터 오타니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았다.

0-5로 뒤진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은 오타니는 상대 선발 잭 플래서의 2구째 시속 93.7마일(약 150.8km)짜리 직구를 노려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오타니의 시즌 14호 홈런이다. 오타니는 17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18일 클리블랜드전에 이어 3경기 연속 대포를 신고했다.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개의 홈런을 몰아쳤다. 전날 시즌 13호 홈런을 신고해 MLB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선 오타니는 공동 2위인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프레디 프리먼(이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미치 헨리(시애틀 매리너스),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 호세 라미레스(클리블랜드·이상 12개)와 격차를 2개로 벌렸다.

오타니는 4회에도 중전 안타를 쳐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오타니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에인절스는 클리블랜드에 5-6으로 석패했다.

뉴스

벤투호, '北 불참' 월드컵 2차예선 일정 확정...다음달 5일·9일·13일

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경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일정이 확정됐다. 북한의 불참 이후 확정된 새 일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북한의 중도 불참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과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가 참가하는 2차 예선 H조 잔여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달 5일과 9일, 13일 각각 열린다”고 전했다.

모든 경기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2차 예선은 원래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렸지만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된 끝에 조별로 특정 국가에서 잔여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됐



다. H조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

벤투호는 5일 오후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갖고, 9일 오후 8시 스리랑카, 13일 오후 3시 레바논과 차례로 상대한다.

A대표팀이 고양에서 경기를 갖는 건 지난해 10월 올림픽대표팀과의 스페셜 매치 이후 8개월만이다. A매치는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2-0 승)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2차 예선 8개조에서 1위를 차지한 8팀과 각조 2위 중 상위 성적 4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벤투호는 24일 명단 발표 후 31일 파주NFC에서 소집된다. 뉴스

최지만, 복귀 두 경기 만에 마수걸이 홈런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부상 복귀 두 번째 경기에서 대포를 가동했다.

최지만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포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8회초 홈런을 때려냈다.

팀이 11-4로 앞선 8회 무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상대 우완 볼레 투수 손 암스트롱의 초구 컷패스트볼을 노려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작렬했다.

최지만의 시즌 1호 홈런이다. 스프링캠프 도중 세 차례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한 최지만은 정규시즌 개막 직전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재활에 매달렸다. 최지만은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한 뒤 지난 17일 뉴욕 메츠전에서 복귀했다.

복귀전에서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최지만은 하루 휴식 뒤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올리며 패조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나머지 타석에서는 범타에 그쳤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최지만은 3회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아웃됐다. 4회와 6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4타수 1안타를 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500이 됐다.

탬파베이는 볼티모어를 13-6으로 누르고 5연승을 질주했다. 24승19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를 사수했다.